『종교학연구』 제41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3, pp.133-169

『영기경(靈棋經)』의 내용과 활용*

최 치 영**

目 次

I. 서론
II. 『영기경』의 구성
III. 중국 자료에 기록된 『영기경』의 활용
IV. 한국 자료에 기록된 『영기경』의 활용
V. 결론

I. 서론

2022년 여름,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둑 문헌을 조사하다가 『영기경』이라는, 낯선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대강을 훑어본 결과, 예상했던 바둑책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흥미로웠다. 『영기경』은 영기(靈棋) 점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 점법에서는 장기알처럼 생긴 영기알(棋子)을 던져 나오는 결과로 점괘를 얻는다. 점괘 풀이는 주역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영기 점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러 문헌을 살펴봤을 때 중국에서 꽤 널리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에서도 최소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양반 계층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부 졸업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글이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부생

에 널리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기경이 두루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어로 된 연구는 신원봉이 번역하고 해설한『윷경』이 유일하다. 이 연구는『사고전서』에 있는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을 충실하게 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에 지나치게 호소하였다는 한계가 있다.[1] 외국에도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어 논문 너댓 편, 일본어 논문 두 편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왕징보(王晶波)는 돈황본 판본을 정리하고, 저자와 주석자가 누구인지 검토했다.[2] 그에 따르면 세상에 전해진『영기경』판본은 1권

---

1) 신원봉은『영기경』의 점치는 방법이 윷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과거에 윷점에 관한 경전인『윷경』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이『윷경』을 보고『영기경』으로 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책이 고대 우리 민족의 경전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3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에서는『영기경』의 유래를 모른다. 둘째, '영기(靈棋)'는 번역어이다. 영기(靈棋)는 '신령스런 바둑돌'이라는 뜻인데, 실제 영기의 크기는 대략 지름이 12mm, 두께가 9mm 정도로 지름은 바둑돌보다 작고 두께는 훨씬 두껍다. 따라서 '바둑돌'이라고 부르기 어색하다. 그런데도 '바둑돌'이라고 이름한 것은, 당시로서는 딱히 뭐라고 이름붙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유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수입되었음을 뜻한다. 셋째, 영기의 숫자 때문이다. 영기는 상(上)이 4개, 중(中)이 4개, 하(下)가 4개이고, 이것들 12개를 한꺼번에 던져 괘상을 추출한다. 12개를 상,중,하의 세 그룹으로 나눈 것은 4개를 세 차례 나누어 던진 것과 동일하다. 4개를 던지는 것은 윷놀이와 동일한 것이며, 중국에는 4개를 3번 던지는 풍습이 없으므로 이것의 모태가 윷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기는 윷의 변형이다. 신원봉,『윷경』(서울: 정신세계사, 2002), 16-28, 63. 나는 이러한 신원봉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에서도『영기경』의 유래를 모른다. 더 나아가 조선 전기까지『영기경』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棋'가 바둑을 뜻한다는 보장이 없다. '棋'는 보드게임 종류의 총칭으로도 쓰였다. 그러므로 '영기'는 장기나 다른 보드게임의 기물을 빗댄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영기와 바둑돌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여 '棋'라는 명칭이 어색한 작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신원봉은 바둑돌의 크기를 제대로 고증하지 않았다. 영기의 크기는 고대 바둑돌과 별 차이가 없다. 백제 의자왕이 일본인에게 선물한 홍아발루기자(紅牙撥鏤碁子)는 지름이 15~17mm, 두께가 7~8mm이다. 또한 신라시대 무덤인 경주 쪽샘 44호분에서 발굴된 바둑알은 지름이 10mm~20mm (평균 15mm), 두께가 5mm 내외였다. 그러므로 고대 바둑알의 크기는 영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4의 배수라는 점이 윷놀이와 유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영기경』이 윷에서 비롯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기환,「명품으로 치장한 '금수저' 신라공주 곁에 바둑돌 863개가 보였다」,『경향신문』 2022.08.14.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8140800001 ; 나라국립박물관 도록,「第57回 正倉院展」(2005), 32.

본 계통과 2권본 계통으로 나뉜다. 가장 유행한 것은 2권본 계통이다. 중국 내에서 유행한 2권본 계통 판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외에 돈황장경에서 나온『영기경』은 총 6건이며, 내용을 맞추어본 결과 4가지 판본으로 정리되었다. 이와모토 아츠시(岩本篤志)는 일본에 있는『영기경』판본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판본들은 중국 판본과 큰 차이가 있다. 톈셩리(田胜利)는『영기경』효사의 내용과 그에 담긴 이념을 정리했다.[3] 잔스촹(詹石窗)은 도교, 주역과의 관련을 검토하였다.[4] 장메이잉(張美櫻)은 주역과 관련한 사상적 특징을 살폈다.[5] 그 외에 서양인이 쓴 것이 몇 편 있다. 모르간(Carole Morgan)은 태강(太康) 연간(280-289)에『영기경』이 작성되었을 것이며, 남송 이후『영기경』의 인기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영기경』에는 불교적 요소가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6]

본고는 우선『영기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판본과 저자, 작성 시기를 알아보고, 내용구성과 사상체계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에서『영기경』을 이용한 영기점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

2) 王晶波,「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0-92.

3) 田胜利,「論《灵棋經》對《周易》的借鑒」, 2015, 7-12.

4) 詹石窗,「灵棋課法的由來及其符号解讀」, 68-78.

5) 張美櫻,「靈棋經及其未來預測內涵」, 119-137. 이 외의 연구로는 太田晶二郎,「靈棋経 (昭和二十六年十月十二日報告)」, 243-253 ; 田胜利,「論《灵棋經》繇辭的詩体特征及取象藝術与意義」, 2016, 49-54.

6) Carole Morgan, "An Introduction to the Lingqi jing",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1(1) (1993): 97-120.『영기경』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프랑스어 논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Morgan, Carole. “A propos des fiches oraculaires de Huang Daxian.” *Journal Asiatique* 275, nos. 1-2 (1987): 163–191. 한편, Guggenmos는 Morgan의 연구를 언급하며『영기경』이 사원 신탁(temple oracle)의 발전을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문헌이라고 말한다. Esther-Maria Guggenmos, Qian Divination and Its Ritual Adaptations in Chinese Buddhism,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46(1) (2018): 49, 66. 그 외의 참고 논문으로는 Carole Morgan, "Old Wine in a New Bottle A New Set of Oracle Slips from China",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6(1) (1998): 1-19. ; Ivan Kashiwa, *Spirit Tokens of the Ling Qi Jing*, Weatherhill Distribution Inc., 1997.

II. 『영기경』의 서지적 특성

1. 『영기경』의 판본과 작성시기

1) 『영기경』 판본

『영기경』 판본은 국내에 있는 것만 최소 11종일 정도로 다양하다.[7] 그 중 필자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판본[8]과 필사본[9], 그리고 사고전서본[10]이다. 신원봉의 한글 번역도 있는데, 사고전서본을 대본으로 하였다. 목판본과 필사본은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였다. 목판본과 사고전서본은 문자적으로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으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했다.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판본을 기본으로 하여 이 글을 썼다. 필사본을 쓰지 않은 이유는 목판본에 비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고전서본을 쓰지 않은 이유는 사고전서본이 조선에서 얼마나 유통되고 활용되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영기경』 작성 시기

『영기경』이 처음 생겨난 때는 빠르면 3세기, 늦어도 당나라 때인 것으로 보인다. 849년 당나라 사람 이원(李遠)이 쓴 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때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을 것이다. 남조 송나라(劉宋) 때 유경숙(劉敬叔)이 쓴 『이원(異苑)』에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는 『영기경』이 전한(前漢) 시대 장량에게서 나왔다고 말한다. 동방삭 이후 전하지 않다가 4세기 영강(寧康) 연간(373-375)에 어떤 노인이 다시 전해주었는데, 이것도 오랜 시간

7) 신원봉, 『윷경』 (서울: 정신세계사, 2002), 248-251. 본고 부록 참조.
8) 모두 2책, 청구기호 古古1-80-21, 정덕 10(1515)년. [앞으로 '목판본'이라고 함]
9) 모두 1책, 청구기호 한古朝22-15, 1823년. [앞으로 '필사본'이라고 함]
10) 사고전서본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https://ctext.org/wiki.pl?if=gb&res=200451

잃어버렸다가 다시 세상에 나왔다고 말한다.

> 12개의 바둑돌로 점치는 것은 장문성(장량)에게서 나왔는데, [장량은] 점치는 법을 황석공에게서 받았다. 군대를 움직이고 쓰는 데에, [점친 결과가] 만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동방삭에 이르러 은밀하게 여러 일을 점쳤다. 이 이후에 [점법이] 숨겨져서 전하지 않았다. 진(晉)나라 영강(寧康) 연간(373~375) 초에, 양성사(襄城寺)의 법미도인(法味道人)이 갑자기 노인 한 분을 만났다. [노인은] 누런 가죽옷을 입고 대나무 통에 이 책을 넣어서 법미도인에게 주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잃어버렸다. 끝내 다시 세상에 전해져 말한다.[11]

당나라 말에서 송나라 초기 무렵 사이에 작성된 돈황본 P. 4048[12]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돈황본은 『이원』과 이야기의 틀이 비슷하지만, 『영기경』의 출현 경위에 대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이원』에서는 노인이 글을 써준 시기가 영강(寧康) 연간(373-375)인 반면, 돈황본에서는 태강(太康) 연간(280-289)이다.[13] 둘째, 『이원』에서는 노인이 써준 글 또한 소재를 잃었다가 다시 세상에 전해진 반면, 돈황본에서는 노인이 써준 글이 곧바로 세상에 전해졌다.

> (앞부분 유실) 공이 또한 이 법을 써서 회남왕의 빈객 노릇을 하였다. 스스로 비법을 보여주었으나, 전하는 자가 없었다. 진(晋)나라 태강(太康) 연간(280-289)에 양

---

11) "十二棋卜出自張文成, 受法於黃石公. 行師用兵, 萬不失一. 逮至東方朔, 密以占衆事. 自此以後, 秘而不傳. 晉寧康初, 襄城寺法味道人, 忽遇一老公, 著黃皮衣, 竹筒盛此書, 以授法味, 無何, 失所在. 遂復傳流于世云." 『異苑』 권5 「十二棋卜」. 『이원』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https://zh.wikisource.org/wiki/%E7%95%B0%E8%8B%91/%E5%8D%B705#%E5%8D%81%E4%BA%8C%E6%A3%8B%E5%8D%9C

12) 돈황본 P.4048은 돈황의 4가지 판본 중 하나이다. 37행이 남아있으며, 서문의 뒷부분과 가장 앞의 괘 2가지(목판본에서 1상1중1하, 1상1중2하에 해당)가 들어 있다. 괘 이름, 괘상(卦象), 점사(占辭)와 주석도 함께 들어있다. 上,中,下 대신 ―, | ,―으로 괘상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주석은 안유명의 것(顔曰)과 하승천의 것(何曰)이 들어 있다. 서문에서 『영기경』의 기원과 전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장정의 형태로 미루어보아 당말 오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王晶波, 「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2.

13) 모르간(Morgan)은 아마 이런 기록을 참고해서 『영기경』이 태강 연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

> 성도인의 법은, 가죽옷을 입은 늙은이가 죽간에 이 글을 쓴 것이다. 이로써 [양성도인이 노인에게서] 법을 받아 마침내 세상에 전해졌다.[14]

왕징보(王晶波)에 따르면 P.4048에서 '회남(淮南)'은 회남 팔공(八公)과 회남왕 유안(劉安)을 가리킨다.[15]

이규경(李圭景)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도 노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읽어보자.

> 진(晉) 나라 양성도인(襄城道人) 상법화(常法和)가 전한 《영기경》을 어떤 이는 이르기를 "맨 처음에 장자방(張子房)이 황석공에게서 받은 것으로 동방삭이 그를 얻어 점조(占兆)로 삼았던 것인데, 회남왕(淮南王 劉安을 가리킨다)의 팔공(八公) 이후로는 비장되어 전하지 않다가 진(晉) 나라 태강(무제(武帝)의 연호. 280~289)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황피(黃皮 황색으로 된 가죽 옷)를 입은 늙은이가 죽통(竹筒)에 다 이 경(經)을 담아서 법화(法和)에게 주었다.[16]

이규경은 돈황본과 같이 태강 연간을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이원』의 내용과 같이 노인이 죽간에 써서 준 것이 아니라 죽통에 담아서 주었다고 말한다. 한편, 『이원』이나 돈황본과는 달리 양성도인의 호칭으로 '상법화(常法和)'가 언급된다.

이러한 진나라 도인의 전설을 사실로 간주한다면 『영기경』은 빠르면 3세기 말에 생겨난 것이 된다.

---

14) "(前缺) 公又用此法, 客于淮南, 自示秘法, 莫有傳者. 晋太康中, 襄城道人法味, 有老翁着皮衣, 以竹簡盛此書, 以受法味, 遂傳于世." 王晶波, 「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3.

15) 王晶波, 「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3.

16) "晉襄城道人常法和所傳《靈棋經》, 或謂其先張子房, 受於黃石公, 而東方朔得之, 以爲占兆者. 自淮南八公以後, 祕以不得傳, 至晉太康中, 始有衣黃皮老翁, 以竹筒盛此經, 授之法和."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史雜類」, 「其他典籍」, 「靈棋經辨證說」.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1A_0180_020_0010_2005_001_XML

2. 『영기경』의 구성

『영기경』은 크게 서문 및 점치는 법 - 괘사 - 후서 및 발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영기알을 만드는 방법부터 점치는 의례까지 점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싣고 있어 점을 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1) 점치는 법

『영기경』 첫머리에는 1361년 유기(劉基)[17]가 쓴 「전서(前序)」, 849년 당나라 이원(李遠)[18]이 쓴 「서(序)」가 있다. 서문 다음으로 영기를 만드는 방법, 점치는 의식, 제사지내는 의식, 축문이 차례로 나온다.

이원이 쓴 「서」는 목판본, 사고전서본, 필사본 모두에 들어있다. 『영기경』의 유래에 관한 추측이 언급된다. 한나라 장량이 황석공에게서 『영기경』을 받았다는 이야기, 동방삭이 『영기경』으로 점을 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19] 하지만 근거가 불분명하여 사실로 믿기 어렵다.

(1) 「영기를 만드는 방법(造靈棋法)」

「서문」 다음에 「영기알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다. 이 글은 먼저 영기알의

---

17) 유기(劉基, 1311~1375). 자(字)는 백온(伯溫). 청전(青田) 사람. 『영기경』에는 "명나라 성의백 유백온(大明 誠意伯 劉伯溫)"으로 적혀있다. 명리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적천수(滴天髓)』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명나라 개국공신으로서 『明史』에 열전이 따로 있다.
"유기는 경사에 박식하였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으며, 상위(象緯, 상수와 참위)의 학문에는 더욱 정밀하였다." 『明史』 권128, 열전 제16 「劉基」

18) 일개 중급 관리였다고 전한다. 詹石窈, 「灵棋課法的由來及其符号解讀」, 69.

19) "영기경은 생겨난 곳을 모른다. 혹자는 '한 유후 장량이 황석공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한 무제에 이르러, 동방삭이 [영기경으로] 사복(射覆)을 했고, 만사가 또한 모두 이 책을 쓴 것에 기이하게 적중했다. (靈棋經者, 不知其所起. 或云, 漢留侯張良, 受之於黃石公 …… 至漢武帝時, 東方朔以覆射, 萬事亦皆奇中用此書也)."

재료와 개수, 모양, 크기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영기알을 만드는 순서를 설명하는데, 각각의 순서를 실행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 벼락나무, 또는 가래나무, 대추나무, 단향나무를 써서 영기알(棋子)을 12개 만든다.[20] 모양은 동그랗고 둘레는 1촌 2푼, 두께는 3푼이다. 4개는 '上'자를 쓰고, 4개는 '中'자를 쓰고, 4개는 '下'자를 쓴다. 갑자일에 돌려서 영기알을 깎고, 갑술일에 글자를 쓰고, 갑신일에 글자를 새기고, 갑오일에 주사(빨간 잉크)를 메우고, [열흘 후] 갑진일에 함에 넣고, 갑인일에 제사를 지낸다(致祭). 육무일(六戊日)에는 점을 치지 말아야 한다.[21]

영기알은 장기알 또는 바둑알과 같이 생겼으며 총 12개이다. 영기알의 한쪽 면에는 글자를 새기고, 반대 면에는 글자를 새기지 않는다. '上'을 새긴 영기알이 4개, 中이 4개, 下가 4개이다. 이것들을 던져서 나오는 상·중·하의 갯수가 곧 괘상이 된다.

60갑자의 시작점인 갑자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만든다. 육무일(六戊日: 무자·무인·무진·무오·무신·무술일)에는 점을 치지 말아야 한다. 甲과 戊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신원봉이 번역한 판본에는 자일(子日: 갑자·병자·무자·경자·임자일)에도 점을 치지 말라고 되어있다.[22]

---

20) 이규경의 글에도 비슷한 언급이 나온다. "『영기경』의 점법은 모름지기 벼락 맞아 쪼개진 대추나무를 써서 만들면 더욱 신기하게 맞는다. (『靈棋經』法, 須用雷劈棗木爲之, 則尤神驗)"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天文類」「風雲雷雨雹虹」.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것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1A_0030_030_0080_2005_002_XML

21) 「造靈棋法」. "用霹靂木, 或梓木, 棗木, 檀香木, 爲棋子十二. 枚形圓, 周尺一寸二分, 厚三分. 四書上字, 四書中字, 四書下字. 甲子日旋(=鏇?)棋子, 甲戌日書字, 甲申日刻字, 甲午日塡硃, 甲辰日入櫃, 甲寅日致祭, 六戊日不宜占卜." 사고전서본 『영기경』. 목판본에 일부 오자가 있어 사고전서본을 인용했다. 번역은 신원봉의 『윷경』을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22) 신원봉, 『윷경』, 80.

(2)「점치는 의례(占儀)」

이어서 2가지 축문이 연이어 등장한다. 이를 본고 (2)절과 (3)절에 소개하고자 한다. 두 축문 모두 신들을 호명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 점괘가 길흉을 맞추도록 감응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두 축문이 연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둘 중 하나가 판본 유통 과정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무릇 점을 칠 때는, 먼저 모름지기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분향하고 ... 영기알(棋子)을 받들고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한다.】[23]
>
> '하늘은 맑고 땅은 평안하다. 하도(河圖)는 신령스러움을 보존한다. 향 하나를 분향하니, 십방(十方)이 엄숙하고 맑아지는도다. 북을 세번 두드리니 모든 신이 함께 듣는구나.'
>
> 【축왈】 ... 00년 00월 00일에 00 00(본적 성씨) 00(이름)이 삼가 분향하여 아룁니다. 천지부모, 태상노군, 일월오성, 북두 28수, 사시오행, 육갑음양, 명당세덕, 천십이신, 지십이기, 세월일시, 직사공조이시여, ... 밝게 드러나시어 보답하고 응하소서. 【한 번 숨을 쉬고 생각한다】 암우우마니달리우타륵![24]
>
> 【3번 나아가서 12개의 영기를 한 번에 던지고, 상중하를 얻은 바에 의지하여 괘를 이룬다. [점괘가 싫다고] 두 번 던져서는 안 된다. 두 번 던지면 징험이 없다. 점괘가 이루어지면 신명을 전송하는 말씀을 아뢴다.】 ... [25]
>
> (밑줄은 필자)

그저 단순히 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례 또한 했음을 알 수 있다. 모

---

23) 【】 괄호 안의 글자는 목판본과 필사본에서 작은 글자로 적혀있다.

24) 신원봉은 도교의 주문의식이 『영기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신원봉, 『옻경』, 81.

25) "【凡占先須冠帶焚香靜坐, 少頃寧心定志, 乃捧棋子先曰】 天淸地寧, 河圖秉靈. 焚香一炷, 十方肅淸. 發鼓三通, 萬神咸聽. 【祝曰】... 玆以某年某月某日, 鄕貫姓名某, 謹焚香上啓. 天地父母, 太上元老, 日月五星, 北斗二十八宿, 四時五行, 六甲陰陽, 明堂歲德, 天十二神, 地十二祗(祇?), 歲月日時, 直事功曹, ... 明彰報應. 【一炁念】 唵吽吽嚩呢嗟哩吽吒勑. 【三遍卽, 以十二棋子, 一時擲之, 依所得上中下成卦, 不可再擲. 再則無驗矣. 占訖, 送神詞曰】..." 목판본 제1책(乾) 11-13쪽.

르간(Morgan)은『영기경』에 불교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26] 하지만 이 인용문에 향을 불사르면서 '十方'이라는 불교식 용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가 추측한『영기경』작성 시기는 태강 연간(太康, 280-289)인데, 그때는 이미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 아마 모르간(Morgan)에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3)「제사 의식(祭儀)」과「축문(祝文)」

<제사 의식>

매년 정월 초칠일을 취하여 물가에서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자리를 땅에 깔고 술과 과일과 포를 놓고 세 차례 예를 행하고, 축문으로 제사지낸다. 매월 7일 또한 가능하다.

<축문>

00년 00월 00일 00갑자 00군 00현 00마을 00관직 아무개가 사맹제신, 사중제신, 사계제신께 제사를 올립니다. 위로 천지부모, 태상원군, 좌일우월, 오성북두, 이십팔수, 사시오행, 육갑음양, 명당세덕, 천십이신, 지십이지, 세월일시, 직사공조께 아룁니다. ... 길흉을 크게 밝혀 저 은미한 기미를 열어 주십시오. ... 움직이고 멈추는 것에 있어서, 이것에 의지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 신께서는 오시어 흠향하십시오.[27]

---

26) Carole Morgan, "An Introduction to the Lingqi jing", 97.

27) "<祭儀>

每歲取正月初七人日, 齋戒沐浴於水邊, 用淨席布地, 設酒果及脯, 三奠行禮, 用祝文祭之, 每月七日亦可.

<祝文>

維 某年 某月 某朔 某日 某甲子 某郡 某縣 某鄉 某官 某致祭于

四孟諸神, 四仲諸神, 四季諸神. 上啓, 天地父母, 太上元君, 左日右月, 五星北斗, 二十八宿, 四時五行, 六甲陰陽, 明堂歲德, 天十二神, 地十二祇, 歲月日時, 直事功曹, 曰, 天地奠位, 人極肇立, 爰有卜筮, 以祛世惑, 維此靈棋, 匪蓍匪龜, 吉凶孔昭, 啓彼隱機. 耿予小子, 不腆菲德, 動靜云爲, 是依是則. 挹彼澗泉, 觴豆具儀, 我忱旣宣. 神其格思尙饗.". 목판본 제1책(乾) 14-15쪽. (번역은 신원봉의 것을 참조하였다.)

신원봉에 따르면 사맹제신은 각 계절의 첫 달, 사중제신은 둘째 달, 사계제신은 셋째 달을 관장하는 신이다. 직사공조(直事功曹)는 "사치공조(四値功曹)라고도 하는데, 도교에서 신봉하는 치년(値年), 치월(値月), 치일(値日), 치시(値時)의 네 신을 말한다." 신원봉,『옻

또 다른 「제사 의식」과 「축문」이 등장하는데, 매년 정월 초칠일에 제사지내거나 매월 7일 제사지내라고 언급한다. 영기점법의 효험이 잘 듣기 위해서는 그저 점을 치는 수준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의례를 행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아래에 언급할 기록들을 보다 보면, 이런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활용에서는 영기경에서 정한 대로 제사를 행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점만 쳤을 가능성도 있다.

2) 괘사

다음으로 125가지 괘가 등장한다. 괘상은 12개의 영기알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로 얻는다. 12개의 영기알은 상,중,하를 새긴 것이 각각 4개씩이므로, 12개를 모두 던지면 상,중,하 각각의 개수는 0~4개가 된다. 그 개수만큼 상·중·하에 숫자를 할당한 것이 곧 괘상이다.

각 괘의 괘사는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괘명, 괘상의 비유, 음양, 방위가 언급되고[28] 다음으로 상전(象傳)이 나온다. 이후 안유명[29], 하승천[30], 진사개[31], 유기 순서로 그들이 쓴 주석이 붙고, 마지막에 시(詩)로 괘를 비유한다.

경』, 81.
원문에서 "天地奠位"는 양웅의 『태현경』에도 나오는 구절이어서 『영기경』이 『태현경』과의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8) 예시: 一上一中一下 大通卦. (昇騰之象) 純陽得令, 乾天西北.

29) 안유명(顔幼明). 동진(東晉) 낭야(琅琊) 사람. 안연(顔淵)의 후손이라고 전한다. 『영기경』 목판본에는 "진나라 가부낭중(晉 駕部郎中)"으로 적혀 있다. 王晶波, 「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6-87.

30) 하승천(何承天, 370-447). 『영기경』에는 "송나라 어사중승(宋 御史中丞)"으로 적혀있음.
"유송(劉宋) 산동(山東) 담성(郯城) 사람. ... 특히 산학(算學)과 역학(易學)에 뛰어나 원가력(元嘉曆)을 만들었다. ... 문집이 전한다."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0208&cid=62063&categoryId=62063

31) 진사개(陣師凱, ?~?). 『영기경』에는 "원나라 여산숙재(元 廬山叔才)"로 적혀있음.
"원나라 남강(南康) 사람. 자는 도용(道勇)이다. 여산(廬山) 동회택(東匯澤)에 은거하여 저술에 힘썼다. 저서에 『상서채전방통(尙書蔡傳旁通)』 등이 있다."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09319&cid=62063&categoryId=62063

각 괘에 길흉을 할당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일단 1, 2, 3, 4가 각각 소양, 소음, 노양, 노음이 되고, 上, 中, 下가 각각 하늘-임금, 사람-신하, 땅-백성이 된다. 소양과 소음은 짝이 되고 노양과 노음이 짝이 된다. 서로 짝을 이루면 좋고 적이 되면 나쁘다.[32] 또한 기본적으로 '陽을 존숭하는' 이념이 깔려있어 양이 많음을 좋게 보고 음이 많음을 나쁘게 본다.[33]

3) 「후서(後序)」와 「발문(跋)」

책의 뒷부분은 「후서(後序)」와 「발(跋)」이 있다. (필사본에는 「후서」가 「전서(前序)」의 이름으로 이원이 쓴 서문 앞에 들어가 있다. 목판본, 사고전서본에는 「후서」의 이름으로 책의 뒤에 들어가 있다.) 발문은 성화(成化) 3년(1467) 왕호(汪浩)가 썼다(識)고 되어 있다.[34] 「발문」 뒤에는 목판본을 간행하면서 쓴 것으로 보

---

32) 유기가 쓴 <前序> 중에서 "영기의 도식(式)은 가로줄이 3개이고, 세로줄이 4개이다. 가로줄 3개에서, 위의 것은 하늘, 가운데 것은 사람, 아래 것은 땅이 되며, 위의 것은 임금, 가운데 것은 신하, 아래 것은 백성이 된다. 세로줄 4개에서, 첫번째 줄은 소양, 세번째 줄은 태양, 두번째 줄은 소음, 네번째 줄은 노음이 된다. 소양과 소음은 짝이 되고, 태양과 노음은 적이 된다. 짝을 얻으면 기쁘고 적을 얻으면 경쟁하니, 그것은 항상됨이다. 혹은 그 도를 잃고 짝이 도리어 적이 되고, 혹은 그 행실을 잃고 적이 도리어 쓰임새가 되니, 그것은 변함이다. 양이 많으면 도가 같고 서로 돕는다. 음이 많으면 뜻이 다르고 서로 어긋난다.(靈棋之式, 以三爲經, 四爲緯. 三, 以上爲天, 中爲人, 下爲地. 上爲君, 中爲臣, 下爲民. 四, 以一爲少陽, 三爲太陽, 二爲少陰, 四爲老陰. 少陽與少陰爲偶, 而太陽與老陰爲敵. 得偶而悅, 得敵而爭. 其常也. 或失其道而偶反爲仇, 或得其行而敵反爲用. 其變也. 陽多則道同而相助, 陰多則志異而相乖.)"

33) 田胜利, 「論《灵棋經》對《周易》的借鑒」, 『武陵學刊』 40, (2015): 9-11.
다만 필자가 보기에 예외는 있다. 1상1중, 1상2중의 사례를 보자. 그저 양을 존숭한다는 원칙에만 따르면 전자가 후자보다 길해야 한다. 하지만 영기경은 후자를 더 길하게 본다. 따라서 다른 원칙(양은 양의 자리에, 음은 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또는 음양이 상응하는 것)이 '양을 존숭하다'는 원칙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사고전서본에는 왕호가 아니라 왕고(汪誥)로 적혀 있다. 하지만 발문 내용을 살펴보면 왕호(汪浩, 1417~1473)가 적었음이 확실하다. 발문에는 "신미년에 진사에 오르고, 벼슬길에 올랐다. …… 갑신년에 이르러 사천 지역을 순무했다. 을유년, 병술년에 도적을 토벌하여 남만을 평정했다."고 되어 있다. 같은 고향(湖广石首, 지금의 湖北石首) 선달 양문정(楊文定)의 문인이었다고도 적혀 있다. "余自辛酉,領鄉書上京,師始得之,鄉先達楊文定之門, 而辛未登進士, 入仕途. 凡破疑決事占之每驗. 至甲申, 巡撫四川. 乙酉丙戌, 討賊平蠻". 목판

이는 글이 있다. 1515년 곽훈[35]이 썼다(書). 「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과거 성인이 『역(易)』을 만들기 전에, 백성이 영기를 갖고 『역(易)』을 본따 만든 것이다. 『주역』의 도는 심오하고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기를 만들어 『주역』을 본 뜬 것이다.[36]

실제 『영기경』의 내용은 『주역』보다 많이 간략하며, 64괘가 아닌 8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영기경』의 작성 시점이 『주역』보다 빠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기가 살았던 원말명초에 대중들 사이에서 비교적 가볍게 점치는 수단으로 『영기경』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영기경』 해석

1) 방위 할당의 문제

『영기경』은 제125 음만괘를 제외한 모든 괘에 방위를 할당하고 있다. 방위는 총 8가지이며, 후천팔괘를 따른다. 삼재에서 천,지,인의 순서도 체(생성의 순서)가 아닌 용(현상의 순서)을 따른다.[37]

삼전형 괘(上·中·下가 각각 최소한 하나 이상 나온 괘)의 경우, 上의 갯수가 홀

본 제2책(坤) 114. 이는 왕호(汪浩)의 삶의 궤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경태(景泰) 2년(1451, 신미년) 진사가 되었고, 사천지방을 순무하였다. 또한 같은 고향 사람 양부(楊溥)에게서 가숙(家塾)하였다. https://www.cidianwang.com/lishi/renwu/6/72066dp.htm

35) 곽훈(郭勛, 1475~1542). 발문에는 "태보무정후 봉양 곽훈(太保武定侯 鳳陽 郭勛)"이라고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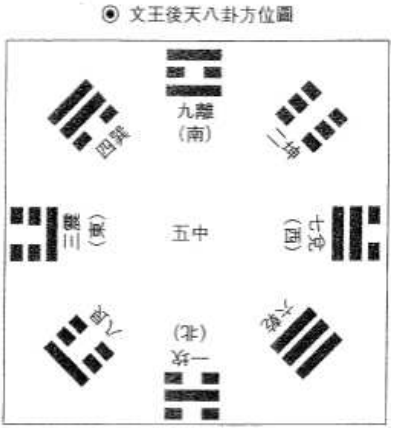
36) "昔者, 聖人作易以前, 民用靈棋象易而作者也. 易道, 奧而難知, 故作靈棋以象之." 목판본 제2책(坤) 119.

37) 삼재에서 생성의 순서를 따르면 상효가 人, 중효가 地, 하효가 天이 된다. 현상의 순서를 따르면 상효가 天, 중효가 人, 하효가 地가 된다.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 1 (서울: 한길사, 1999), 28.

수이면 상효를 양으로 두고, 음수이면 음으로 둔다. 중효, 하효도 마찬가지로 한다. 그렇게 얻은 팔괘의 방위를 괘에 배정한다.[38] 양전형 괘(上·中·下 가운데 두 종류의 글자만 나온 괘)의 경우, '陽陽'은 건괘, '陽陰'은 간괘, '陰陽'은 진괘, '陰陰'은 곤괘에 할당한다. 단열형 괘(上·中·下 가운데 한가지 종류의 글자만 나온 괘)의 경우, '陽'은 건괘, '陰'은 곤괘에 할당한다. 이리하여 상, 중, 하의 순서대로 음양을 표시하면, 할당을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乾天西北	**양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 □양□, □□양**
選風東南	양양음
離火正南	양음양
艮山東北	**양음음, 양음□, □양음, 양□음**
兌澤正西 兌金正西	음양양
坎水正北	음양음
震雷正東	**음음양, 음양□, □음양, 음□양**
坤地西南	**음음음, 음음□, □음음, 음□음,음□□, □음□, □□음**

[표1] 방위 할당



[그림1] 후천팔괘도

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은 몇 가지 괘에서 할당 규칙이 깨지는 문제가 있다. 四上四中一下 沈翳卦는 규칙대로라면 震雷正東에 할당해야 하지만 兌澤正西에 할

38) 신원봉은 할당된 방위가 길한 방향이라고 해석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냥 팔괘 구성에 의해 방위가 할당되었을 뿐인 것이다. 점을 쳐서 어떤 괘를 뽑았다고 해서, 그 괘에 해당하는 방향이 반드시 길한 방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하다. 신원봉, 『윷경』, 73.

당하고 있다. 四上三中三下 救助卦는 兌澤正西에 할당해야 하지만 艮山東北에 할당하고 있다. 三上一中二下 天佑卦는 選風東南에 할당해야 하지만 艮山東北에 할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필사본에서도 반복된다. (그 점에서 필사본은 목판본을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사고전서본은 모든 괘에 규칙대로 방위를 할당하고 있다. 아마 사고전서를 만들면서 교정한 것 같다.

장메이잉(張美櫻)은 '양음□, □양음, 양□음'이나 '음양□, □음양, 음□양'처럼 음양이 섞여있는 양전형 괘가 손괘(巽卦, 양양음)나 태괘(兌卦, 음양양)에 할당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기경』은 양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9] 아마도 간괘, 진괘가 각각 소남(小男), 장남(長男)에 해당하는 반면 손괘, 태괘는 각각 장녀(長女), 소녀(小女)에 해당함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 같다. 이렇듯 8괘(소성괘)와의 연관성은 명확해 보이나, 64괘(대성괘)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III. 중국 자료에 기록된 『영기경』의 활용

1) 『태평어람(太平御覽)』

강밀(江謐, 431~482)은 남조 송나라, 제나라의 관리였다. 그는 제나라 무제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경위가 북송 시기의 『태평어람』에 나와있다.

> 『남제서』에서 말했다: 강밀(江謐, 431~482)이 북쪽을 진압하는 長史가 되고 남동해 태수가 되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근심이 심하여, 이에 영기경으로 점치니 점괘가 말했다: '손님이 있어 남쪽에서 오는데, 금으로 된 그릇에 3개의 잔이다.' 임금이 어사중승 심충으로 하여금 강밀의 전후 죄를 아뢰도록 하여, 체포하여 정위(廷尉)에 회부하고 사사했다. 과연 금으로 된 병에 짐독을 담아서 그를 죽였다.[40]

39) 張美櫻, 「靈棋經及其未來預測內涵」, 127-128.

『태평어람』에는 이 인용문의 출처가 『남제서』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남제서』에는 강밀이 세조의 미움을 사 사사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영기경』으로 점을 쳤다는 내용이 없었다.[41] 한편 『남사』에는 『영기경』으로 점을 쳤다는 내용도 나온다.[42] 『남사』를 『남제서』로 잘못 인용한 듯하다.

강밀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괘사는 송화괘에 나온다. 송화괘를 보자.

> 제37괘. 3상2중1하 송화괘.
> 풍성하고 이로운 상이다. 음이 바깥의 양을 획득했으니, 리화정남(離火正南)에 해당한다.
> 상왈: 손님이 남쪽에서 와서, 내게 좋은 재물을 남긴다. 보화와 진완(珍玩)과 금 그릇(金碗) 옥잔(玉椶)이로다.
> 안유명: 주인장에게 물건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으니, 와서 집안에 거함이 길하다. …… 금 그릇과 옥잔은 좋은 잔치의 도구이다.
> 하승천: 시집가는 것은 길하다. 구하는 것은 얻어진다. 병자는 낫는다. 장사는 유리하다. 관사(官事)는 길하다. 행인은 이른다. 이 괘는 대길(大吉)이다.
> 유기: …… 점치는 자는 재물을 구하고 결혼한다. 모든 일(白事)이 크게 길하다.[43]

---

40)“《齊書》曰：江謐出爲鎭北長史，南東海太守，未發，憂甚，乃以靈棋經占卦云：「有客南來，金碗三杯。」上使御史中丞沈沖奏謐前后罪，收付廷尉，賜死，果以金罌盛藥鴆之。”『太平御覽』「方術部七」「十二棋卜」https://ctext.org/text.pl?node=396382&if=en

41) “謐才長刀筆，所在事辦。太祖崩，謐稱疾不入，衆頗疑其怨不豫顧命也。世祖卽位，謐又不遷官，以此怨望。時世祖不豫，謐詣豫章王嶷請閒曰：「至尊非起疾，東宮又非才，公今欲作何計？」世祖知之，出謐爲征虜將軍、鎭北長史、南東海太守。未發，上使御史中丞沈沖奏謐前後罪曰：「謐少懷輕躁，長習諂薄，交無義合，行必利動。特以奕世更局，見擢宋朝，而阿諛內外，貨賂公行，咎盈憲簡，戾彰朝聽，輿金輦寶，取容近習。以沈攸之地勝兵强，終當得志，委心託身，歲暮相結。…… 而謐妄發樞機，坐構囂論。復敢貶謗儲后，不顧辭端，毁折宗王，每窮舌杪。皆云誥誓乖禮，崇樹失宜，仰指天，俯畫地，希幸災故，以申積憤。犯上之迹旣彰，反噬之情已著。請免官削爵土，收送廷尉獄治罪。」詔賜死，時年五十二。『남제서』 권31,「열전」 제12,「江謐」
https://zh.wikisource.org/wiki/%E5%8D%97%E9%BD%8A%E6%9B%B8/%E5%8D%B731

42) “謐才長刀筆，所在幹職。高帝崩，謐稱疾不入，衆頗疑其怨不預顧命。武帝卽位，謐又不遷官，以此怨望。時武帝不豫，謐詣豫章王嶷，請閑曰：「至尊非起疾，東宮又非才，公今欲何計？」武帝知之，出謐爲鎭北長史、南東海太守。未發，憂甚，乃以奕棋占卦云：「有客南來，金碗玉杯。」 上使御史中丞沈沖奏謐前後罪惡，請收送廷尉。詔賜死，果以金罌盛藥鴆之。”『남사』 권36,「열전」 제26,「姜秉之」, 中華書局,
https://zh.wikisource.org/wiki/%E5%8D%97%E5%8F%B2/%E5%8D%B736

(밑줄은 필자)

송화괘와 태평어람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태평어람은 <상전>을 인용하여 '有客南來, 金碗三杯'라고 말하고 있으나, 송화괘의 상전에는 '有客南來, ... , 金碗玉椹'라고 적혀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차이는 '玉'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획을 빠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정도는 된다. 둘째, 주목할 만한 차이는 송화괘의 주석에서 생긴다. 송화괘는 네 가지 주석 모두 매우 길한 것으로 해석한다. 안유명은 금 그릇이 좋은 잔치의 도구라고 말하고, 하승천은 '관사(官事)는 길하다.' '대길(大吉)이다'고 말하고, 유기는 '모든 일(百事)이 크게 길하다'고 한다. 따라서 강밀이 죽임을 당한 것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거칠게 추측하면 가능성은 2가지이다. 첫째, 육조시대까지 <상전>은 있었으나 나머지 주석은 없었을 가능성이다. 둘째, 『남사』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주석을 무시했을 가능성이다. 전자가 옳다면 안유명과 하승천의 주석은 그들 본인이 아닌 후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죄인을 사사할 때 독을 굳이 금 그릇에 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남사』가 쓰인 당나라 때에는 최소한 <상전>은 있었다.

---

43) 목판본 제1책(乾) 91. "37. 三上二中一下 送貨卦
豐利之象. 陰獲外陽, 離火正南.
象曰: 客從南來, 遺我良材, 寶貨珍玩, 金碗玉椹
顔曰: 主有人送物, 來居家吉. 行人還. 得寶及財物. 又曰, 以陰處中, 應乎外陽. 有朋遠來, 不亦宜乎. 南者陽位, 故曰, 南來寶貨珍玩, 貴人之資也. 金碗玉盃, 良宴之具也.
何曰: 嫁娶吉. 所求得. 病者瘥. 市賈有利. 官事散. 行人至. 此卦大吉.
陳曰: 一與二相應, 而一陽居地, 富有之象也. 三陽在上, 陽明下照. 故曰云云.
劉曰: 客從南來, 剛柔應也. 金椀玉杯, 以將敬也. 此課, 少陰居中, 一陽爲比於下, 而盛陽得位于上. 陰以柔順, 應乎外陽, 故必得瑤貨之. '南來'者, 上三爲離, 離南方也. '金椀玉杯'者, 下一爲乾, 乾爲金玉金碗玉盃之象也. 初者上之應, 而與中爲耦, 是受客之遺也. 占者, 求財, 結婚, 百事, 大吉.
詩曰: 金穀紛紛花正開, 群仙縹渺集瑤臺, 傾銀注玉驚人眼, 共醉春風日幾回." 목판본 제1책(乾) 91. (번역은 신원봉의 『옻경』을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2)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군재독서지』는 남송의 목록학자이자 장서가인 조공무(晁公武, 1105~1180)가 쓴 방대한 분량의 해제목록이다.[44]

> 이 책은 한나라 동방삭이 찬했다고도 하고, 또 장량, 유안이라고도 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진나라 안유명, 송나라 하승천이 주를 달고, 당나라 이원의 「서(序)」가 있다. 귀래자(歸來子)는 황석공이 썼다고 여겼는데, 어찌 장량이 [황석공에게] 받은 것이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남사』에 '客從南來, 遺我良財, 寶貨珠璣, 金碗玉杯'라는 말이 실려 있으므로, 오래된 책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모두 120괘이고, [괘마다] 모두 요사(繇辭)가 있다.[45]

『군재독서지』는 12세기 남송 때의 책인데, 여기서는 안유명, 하승천의 주는 언급하지만, 진사개, 유백온의 주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12세기에는 안유명, 하승천의 주석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며, 진사개, 안유명의 주와 시(詩)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출처로 하여 실려있는 글과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 『문헌통고』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문장이 있었다. 『문헌통고』는 1319년 간행된 책이므로, 『군재독서지』보다 저술 시기가 늦다. 그래서 문헌통고가 군재독서지의 글을 그대로 옮겨적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때, 『문헌통고』가 쓰인 14세기 초반에도 진사개, 유기의 주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진사개와 유백온의 주석이 각각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44) 동양고전종합DB, 동양고전해제집, 사부, 군재독서지.
http://db.cyberseodang.or.kr/front/sabuList/BookMain.do?bnCode=jti_5a1001&titleId=C34

45) "《靈棋經》二卷
右漢東方朔撰。又云張良、劉安，未知孰是。晉顏幼明、宋何承天注。有唐李遠敘。歸來子以爲黃石公書，豈謂以授良者邪？按《南史》載「客從南來，遺我良財，寶貨珠璣，金碗玉杯」之繇，則古之遺書也明矣。凡一百二十卦，皆有繇辭。"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27348#p62

3)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수서』「경적지」를 보면 『십이영기복경(十二靈棋卜經)』 한 권이 실려 있고, 또 『남사』에는 "손님이 남쪽에서 와 나에게 좋은 재료, 보배와 진기한 노리개, 금주발과 옥술잔을 남겨준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경전 37괘의 상사(象辭)로서, 이것을 보면 이 책이 원래 육조시대 이전에 나온 것으로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사』「예문지」에 의하면 따로 이진(李進)이 주(注)를 붙인 『영기경』 한 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 요컨대 이것은 역(易)의 시초(蓍草)점과 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사람의 주석이 있지만, 어떤 것은 어투나 논지가 천박하고 속되어 후인이 덧칠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전(靑田, 유기를 말함)의 주(注)만은 홀로 아름답고 고상하니, 실로 유기(劉基)가 직접 쓴 것인 듯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간략하지만 뜻이 정치하고 진실되어, 세상의 생극제화로 술수를 삼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까닭에 기록 보존하여 옛 점법의 한 종류로 비치하고자 합니다.

건륭 46년(1781년) 10월 교정하여 삼가 올립니다.[46]

『사고전서총목제요』에는 이전의 『영기경』 판본을 교정하여 사고전서본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어떤 판본으로 바탕으로 하여 교정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불분명하다.

왕징보(王晶波)에 따르면 『송사』에는 이진(李進) 주(注) 1권이 있고, 『통지예문략(通志藝文略)』에는 이섬(李暹) 찬(撰) 1권이 있다. 왕징보는 '暹'과 '進'은 같은 글자가 와전된 것이며 본래 동일한 판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통지』가 먼저 나온 책이므로 이를 따르겠다고 말한다. 당나라 때 이섬은 3명이 있는데, 모두 황실의 후손이다. 한 사람은 영주자사(靈州刺史) 습광천군공(襲廣川郡公)이고,

---

46) (전략) 惟考『隋書』「經籍志」卽有『十二靈棊卜經』一卷, 而『南史』所載 '客從南來, 遺我良材, 寶貨珠璣, 金盌玉盃'之繇, 實爲今經中「第三十七卦」象詞, 則是書本出自六朝以前, 其由來亦已古矣. …… 『宋』「志」別有李進注『靈棊經』一卷, 則今已失傳. …… 大抵, 與易筮相爲表裏. 雖所存諸家疏解, 或詞旨淺俚, 不無後人之緣飾, 而靑田一註獨爲馴雅, 或實基所自作, 亦未可知. 觀其詞, 簡義精誠, 異乎世之生剋制化以爲術者矣. 故錄而存之, 以備古占法之一種焉. 번역은 신원봉의 것을 따랐음.

또 한 사람은 견원위(汧源尉)이고, 또 한 사람은 소왕(韶王)이다. 셋 중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혹은 李進과 李暹 모두 당나라 이원(李遠)의 오기일 수도 있다.[47]

『사고전서』 교정자들은 유기의 주석만이 고상하고, 나머지 주석은 수준 이하라고 말한다. 이규경 또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

> 어떤 이는 이르기를 "…… 대개 《태현경(太玄經)》을 모방한 것이나 내용은 더욱 천루(淺陋)한 것이다. 그러나 《남사》의 경(經) 안에 이미 실려 있으니, 진(晉) 나라 때부터 전해 온 것이 분명하다.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 오행류(五行類)에 《영기경》 1권이 있는데, 지금 그 주사(繇辭)를 보면 모두 비루하고 저속해서 진(晉)·송(宋) 이전 도가(道家)의 문자(文字)가 아닌 듯하니, 이는 반드시 한(漢)·위(魏)의 말엽에 오행가(五行家)가 지은 것을 동방삭에게 의탁하여 귀중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유명과 하승천의 주도 취할 것이 없다. 원(元) 나라 선비 호일계(胡一桂)가 《익전외편(翼傳外篇)》을 저술할 때 《태현경》이하 《동림(洞林)》·《황극(皇極)》·《원포(元包)》·《잠허(潛虛)》등 제가(諸家)의 복서(卜筮)에 대한 글을 논술하지 않은 것 없이 내리 서술하면서도 이 《영기경》만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대도(大道)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족히 기록할 것이 못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하였다.[48] 상고하건대, 이 논이 매우 조리가 있어서 쌓인 의심을 풀 만하다.
>
> …… 각각 주사(繇辭)가 있고 그 글이 단아하고 심오하여, 후세의 술가(術家)들이 능히 조작할 바가 아니다. 유기(劉基)의 주도 의탁한 것이 아닌 듯하다.[49]

---

47) 王晶波,「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7.

48) 이규경이 인용한 문장의 출처가 무엇인지, 이 문장을 쓴 '어떤 이'가 누구인지는 찾지 못하였다.

49) "或謂 …… 蓋擬《太玄》。而識尤淺陋者也。然在《南史》已載經中。自晉傳來信矣。《宋·藝文志·五行類》。有《靈棋經》一卷。今觀其繇皆鄙俚。類非晉、宋以前有道者文字。其必漢、魏之季五行家所作。而依托東方朔。以爲重歟。顔、何之注。亦無取焉。元儒胡一桂著《翼傳外篇》。歷敍諸家卜筮之書。《太玄》以下。《洞林》、《皇極》、《元包》、《潛虛》之類。無不論述。而獨不及此經。得非以其無繫於大道而不足錄耶。【按此論。極有條理。可釋舊疑。】 …… 各有繇辭。其文雅奧。非後世術家所能僞。劉基之注。似亦非依托也。"『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經史雜類」「其他典籍」「靈棋經辨證說」,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1A_0180_020_0010_2005_001_XML

『사고전서』 교정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규경도 유기의 주석은 아름답지만 안유명과 하승천의 주석은 취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IV. 한국 자료에 나온 『영기경』의 활용

1) 인조반정과 최명길

『곤륜집(崑崙集)』은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의 증손 최창대(崔昌大, 1669~1720)의 문집이다. 이 기록에는 최명길이 인조반정(1623) 때 『영기경』으로 점을 쳐 거사 날짜를 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 계해년 여러 공들이 바야흐로 은밀히 반정을 모의했다. 인조는 일찍이 왕래가 있어서, 공들이 가서 뵙고는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태양을 보건대 다함이 예사롭지 않다." 수레와 말과 노비가 또한 들떠서 생기가 있으니, 거사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50]
>
> 거사할 모의가 이미 정하여졌으나 여러 사람이 안팎으로 흩어져 있었으므로 힘을 합하지 못하여 일이 자못 어긋났다. 최명길이 이것을 걱정하여 계해년 봄에 서울 교외에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사람에게 통고함으로써 드디어 계획이 정하여졌다. 명길이 일찍이 유청전(劉靑田)[51]의 영기점법(靈棋占法)에 통달하여 점을 쳐서 좋은 날을 받아 군사를 일으킬 시기를 정하였는데, 공훈을 정할 때에 명길이 일등공신이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52][53]

---

50) 이 문단 번역은 필자.

51) 유기를 말함. 유기의 고향이 청전이다.

52) 이 문단 번역은 한국고전종합 DB, 『연려실기술』 권23, 「인조조 고사본말」, 「계해정사(癸亥靖社)」,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40_010_0030_2000_005_XML

53) "癸亥諸公方密謀反正也。仁廟嘗有出入。公適望見。歸而語人曰。今觀日表。儘非常。輿馬僕從。亦勃勃有生氣。義擧之成。無疑。
擧義密謀已定。諸公散處內外。不能合幷。事頗齟齬。公憂之。癸亥春。自郊畿入城。通告諸公。遂定計。公嘗通曉劉靑田靈棋占法。因以靈棋筮。得吉日定師期。策功時。公之爲一等。

최명길이 영기점법에 '통달'했으며, 이를 통해 거사 날짜를 정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영기경』이 당시 양반층에서 꽤 유행했던 것 같다.

인용문 두 번째 문단은 『연려실기술』도 그대로 인용한다. 최명길의 증손이 쓴 만큼 믿을 만한 자료라고 이긍익이 판단한 듯하다. 실제 최창대의 사망 날짜가 인조반정 후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필자 또한 이 자료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한다.[54]

2) 고산 윤선도의 상소

윤선도는 1616년에 이이첨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다.[55] 그런데 상소를 올리기 전, 양아버지 윤유기가 말렸던 모양이다. 그때는 이이첨이 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이이첨에 대한 비판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윤선도는 윤유기를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 상소하는 그 일은 백번 생각해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이첨에 대한 한 조목 역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 군부(君父)의 위급한 사정을 좌시하면서, 한갓 몸을 보전하고 처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만 지닌 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저버리는 것이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 삼가 바라옵건대, 의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소서. 점사(占辭)에도 "지위가 이미 정대한지라, 하늘과 사람이 덕을 합하였다.〔地位旣正 天人合德〕"라고 하였으니, 이보다 더 크게 길할 수가 없습니다.[56]

蓋以此。" 한국고전종합DB,『昆侖集』권20,「遺事」,「遲川公遺事」,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66A_0200_010_0010_2004_A183_XML

54) 모정 이원익(芧亭 李源益, 1792~1854)이 쓴『기년동사약』에도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최명길이 평소 유기의 영기점법을 잘하여, 이 날을 선택함이 길하다고 하였다. (崔鳴吉素善劉靑田靈棋占法以是日涓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紀年東史約』권20「本朝紀」「癸亥十五年,仁祖元年」,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sa&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sa_064_0220_0010_0150&position=-1

55) 해당 상소문은 『고산유고』2권에「병진소(丙辰疏)」라는 제목으로 전문이 실려 있다.

윤선도는 양아버지에게 글을 올려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이첨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신하 된 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에 『영기경』의 점괘도 길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양아버지를 안심시킨다. 최명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결정에 영기경이 사용된 사례이다. 편지에서 나온 점사는 3상1중2하 天佑卦의 안유명 주석에 있다.[57] 점괘가 틀렸는지 윤선도는 이 상소로 인해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는 영기(靈棋)가 전시되어 있다.[58]

3) 강세구의 귀양

아래 인용문은 이익(李瀷, 1681~1763)이 쓴 강세구(姜世龜, 1632-1703)의 신도비명이다. 장희빈이 사사되자 강세구는 숙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장희빈의 아들이자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불쌍히 여기고 장희빈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이 상소로 강세구는 함경도 홍원(洪原)으로 귀양을 간다. 그때가 1701년, 강세구의 나이 70세였다.

> 이듬해 윤월(閏月)에 유배에서 풀어 주라는 숙종의 특명이 내렸다. 수종하는 이가 《영기점법경(靈棊占法經)》으로 점을 쳤는데 "수탉이 낮에 울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 목을 빼어 들고 있고 암탉은 담장 아래에서 이리를 보고 놀란다."라는 점괘가 나왔다.

---

56) "子言深切著明，似愈於前輩所陳，聖明必能洞燭。伏望勿疑勿憂。占辭亦曰"地位旣正，天人合德"，吉莫大也。"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孤山遺稿』 제3권 하, 「어버이에게 올리는 글(上親庭書)」(1616년),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32A_0040_010_0010_2013_002_XML

57) "顔曰, 得助之象, 事由女子. 居家吉利. 官職榮遷. 學業大成. 行人未還, 必得竒物. 病者自瘥. 又曰, 地位旣正, 天人合德, 猶升高而視六合, 且下應乎陰人得其偶, 神符授我, 可企而見, 百歲期頤, 可坐而登, 此貴者之卦. 陰陽得位, 無相剋傷. 百事大吉." 목판본 제1책(乾) 84쪽.

58)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홈페이지,
https://gosan.haenam.go.kr/bbs/board.php?bo_table=exhibithall2&wr_id=67
https://gosan.haenam.go.kr/bbs/board.php?bo_table=exhibithall2&wr_id=66&page=2&page=2

얼마 후 대간에서 계사를 올려 명을 거두어 줄 것을 강력하게 청하였는데, 유신(儒臣) 윤성준(尹星駿)이 글을 올려 이치에 맞게 선생을 변론하다가 파직되었고 대간의 계사는 윤허받았다.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는 "점괘가 맞았구나."라고 하였다.[59]

언급된 점괘는 6번째 괘 一上二中二下 驚怖卦의 상전에 나온다. 실제로 이 점괘의 안유명 주석은 "구속된 사람은 힘이 있어서 곧 풀려난다"라고 말한다.[60]

'수종하는 이(從者)'가 점을 쳤다는 점에서 영기점법이 양반계층뿐만 아니라 낮은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졌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다. 다만 '從者'가 정말 양반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귀양간 사람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같이 있었던 친척 정도를 말하는지 애매한 것 같다. 게다가 양반이 아닌데 어떻게 한문을 읽을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양반 이외의 계층이 『영기경』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4) 박광일의 꿈과 『영기경』 판본

박광일(朴光一, 1655~1723)은 송시열 문하에서 배우고 권상하(權尙夏), 정호(鄭澔)등과 교유한 유학자이다. 그는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고 이상하게 여겨 『영기경』으로 점을 친다. 박광일은 그 내용을 기록해두었고, 그것이 그의 손자가 편집한 문집에 실린다.[61] 그 기록을 살펴보면 박광일이 본 『영기경』 판본이 무엇인지

---

59) "越明年閏月。特命放釋。從者以靈棊占。其繇曰"雄雞晝鳴。登屋延頸。雌在牆下。爲貍所驚"。俄聞臺啓峻發。請收成命。儒臣尹星駿上書伸理。星駿斥去。啓亦允從。先生曰卜其驗矣。"
한국고전종합DB, 『성호전집』 제58권 비명(碑銘) 「삼휴당 강 선생 신도비명 병서(三休堂姜先生神道碑銘 幷序)」,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489A_0580_010_0020&viewSync=OT

60) "象曰, **雄鷄晝鳴, 登屋延頸, 雌在墻下, 爲貍所驚,** 絶聲來赴, 得免損傾.
顔曰, 凡事初, 雖狼狽終無他, 慮百事先破後成. 行人未至. 病宜早治. 又曰, 上應在初, 爲中所隔, 不能相救, 故致驚也. 然居高履危, 終制强禦. 絶聲來赴, 得免禍患, 雄屬陽, 雌屬陰, 鷄之賊莫若貍也. 此卦憂驚, 官事不成, **繫囚有力乃釋**." 목판본 제1책(乾) 28-29쪽. (밑줄은 필자)

61) 박성학,「박광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0555 ; 박성학, 「손재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0560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일찍이 꿈에서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그 땅은 깨끗하기가 맑은 얼음 같고 밝기가 수정 같았으며, 뭇별들이 밝게 펼쳐지고 삼엄이 벌여 있어 눈을 뜨면 상쾌하여 나도 모르게 정신이 맑아지고 뼛속까지 서늘하였다. 나는 "이곳이 자미원(紫微垣)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놀라 깨어났다. 그러고는 혼자서 말하기를 "이는 정(情)에 이끌린 꿈이 아니라, 이 마음이 정처 없이 내달리다 연못에 빠지고 하늘을 난 소치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영기점법경(靈棋占法經)》으로 점을 쳐 보니, 그 시에 이르기를 "고사리를 뜯고 솔잎 먹으며 속세 먼지 벗어나니, 흰 구름에 물 흐르는 만년 세월이 봄이로다. 구중궁궐의 붉은 조서(詔書)는 내 소원이 아니요, 성성(成性)에 항상 마음을 두어 홀로 참된 성(性)을 기르리라."라고 하였다. 나는 곧 차운하여 "멀리 방장산(方丈山 지리산(智異山))을 찾아와 시끄러운 세상 먼지 피하여, 백옥 같은 꽃이 흐드러진 봄날을 세 번이나 보았도다. 돌아보면 이 몸은 신선의 인연 박하기에, 자미원의 맑은 꿈이 사실 아니라서 한스럽다네."라고 지은 뒤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웃었다.

지금 천묵재(天默齋)의 문집 가운데 꿈에서 자미원에 들어간 일이 실려 있는데, 시에서 이르기를 "이 몸이 일찍이 옥경(玉京)의 신선이었다가, 방장산 곁으로 유배되어 내려왔도다. 꿈에 황학을 타고 남명(南溟)으로 가 보니, 팔만의 신선 봉우리에 꽃들은 하늘에 닿았다오."라고 하였기에, 은근히 정신이 편안하고 기운이 안정된 군자도 오히려 이런 꿈을 꾸었음을 스스로 다행으로 여겼으니, 나의 지난번 꿈은 혹시라도 마음의 병 아니었던가. 또한 선(仙) 자 운을 공경히 빌려 "꿈에 청도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자미원 안의 광한루 옆에 있었는데, 즐겁게 놀다 한번 인간 세상 내려오니, 북극성이 구만리 하늘에 아득하여라."라고 지었으니, 오직 그대나 한번 웃어넘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 주지 마시게.62)

(밑줄은 필자)

---

62) "愚嘗夢至一處。其地淨如淸氷。明如水晶。而衆星昭布森列。開目爽然。不覺神淸而骨冷。余曰此是紫微垣。何緣到此。蘧然魂悸而覺。乃自私語曰。此非牽情夢。無乃此心走作不定。淵淪天飛之致歟。叩諸靈棋而玩占。則其詩曰採薇餐松絶世塵。白雲流水萬年春。九重丹詔非吾願。成性存存獨養眞。愚乃次其韻曰。遠尋方丈避囂塵。三見瑤花爛熳春。自顧此身仙分薄。紫微淸夢恨非眞。以示朋友而笑之矣。今於天嘿齋集中有夢入紫微垣事。而有詩云此身曾是玉京仙。謫下猶來方丈邊。夢乘黃鶴南溟去。八萬神峯花接天。仍竊自幸以爲神安氣定之君子。猶有是夢。愚者疇昔之夢。或者非心病歟。又敬次仙韻曰。夢入淸都身是仙。紫微垣裡廣漢邊。遨遊一下人間世。星斗迢迢九萬天。惟吾友一笑而勿掛人眼也。" 번역과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遜齋集』 제7권,「잡저(雜著)」,「이생에게 준 몽설(夢說贈李生)」,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446A_0080_010_0050_2019_002_XML

언급된 점괘(밑줄 그은 부분)는 제41괘 정수괘에 나온다. 두번째 문단에 인용된 시는『영기경』에 없었다.

위 『손재집』 인용문에 나오는 점괘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이나 사고전서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손재집』	詩曰, 採**薇餐**松絶世塵, 白雲流水萬年春, 九重丹詔非吾**願**, 成性**存存**獨養眞.
목판본	詩曰, 采**蕨飡**松絶世塵, 白雲流水萬年春, 九重丹詔非吾**願**, 成性**存存**獨養眞.
사고전서본	詩曰, 采**蕨飡**松絶世塵, 白雲流水萬年春, 九重丹詔非吾**意**, 成性**存心**獨養眞.

[표2] 판본 비교

이체자를 같은 글자로 취급한다면, 크게 세 군데(薇-蕨, 願-意, 存存-存心)에서 차이가 보인다. 우선, 인용문에서 '薇'로 쓴 것을 목판본과 사고전서본은 '蕨'로 쓰고 있다. 두 글자는 모두 《詩·召南·草蟲》[63]과 《詩·小旻之什·四月》[64]에 등장한다. '薇'와 '蕨'는『시경식물도감』에는 서로 다른 식물로 적혀있지만[65],『시경』에는 나란히 쓰여있어서 인용문의 저자는 거의 같은 식물로 생각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판본상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옮겨적는 과정에서 다르게 적혔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願'과 '意'의 차이에 대해서 보자. 양자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다만 '願'의 동자인 '愿'을 '意'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存存'과 '存心'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표현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손재집을 쓴 박광일은 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을 보았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사고전서본을 보았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

63) 《詩·召南·草蟲》
陟彼南山, 言采其**蕨**。未見君子。憂心惙惙。亦既見止, 亦既覯止, 我心則說。
陟彼南山, 言采其**薇**。未見君子。我心傷悲。亦既見止, 亦既覯止, 我心則夷。

64) 《詩經·小旻之什·四月》
山有蕨薇, 隰有杞桋。君子作歌, 維以告哀。

65) 王琳,『詩經植物圖鑒』, 上海書店出版社, 2003, 36-38.

5) 벽오 이시발과 임진왜란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흥선대원군과 대립하여 관직 생활에 부침을 겪지만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랐다. 1882년 전권대신으로 제물포조약에 조인한 사람이기도 하다.[66] 그가 1871년에 탈고한『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이시발[67]이 『영기경』으로 점을 친 내용, 『영기경』이 조선에 들어온 연대가 언급된다.

> 《영기경(靈棋經)》
>
> 벽오(碧梧) 이시발(李時發)은 임진왜란 때, 병사들을 불러 모아 나라에 충성을 바쳤고 그 뒤에 백사공(白沙公)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참모가 되었으며, 또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밑에 있으면서 여러 번 공을 세웠는데, 8년 동안 매번 《영기경》을 가지고 집안과 국가의 길흉을 점쳤다. 이는 바로 유성의(劉誠意)가 찬술한 것이니, 명(明)나라 태조를 보좌한 사람이다. 그때는 오래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유독 공만이 그것을 체득하여 300년 동안 전해졌다. 내가 일찍이 한 번 빌려 내용을 읽어 보고 황지(黃紙)에 베껴 두었다. 말[棋]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는데, 열두 매(枚)이다.[68]

인용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때는『영기경』이 조선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따라서 1500년대 초반까지는『영기

---

66) 이완재,「이유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5430

67)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은 임진왜란 때 병조좌랑, 병조정랑 등 관료로 활약한 인물이다. 광해군 때에 병조참판을 지냈다가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여 사직했다. 인조 때에 형조판서를 지내고 이괄의 난 수습에 공을 세웠다. 조계찬,「이시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975

68) <靈棋經>
"李碧梧公時發. 當壬辰之役. 召募勤王. 後辟白沙公本兵佐幕. 又從梧陰尹公. 屢建功. 八年之間. 每以靈棋經卜家國之吉凶. 卽劉誠意取撰. 佐明太祖者也. 其時去古未遠. 知之者鮮. 獨公得之. 三百年尙傳. 余曾一借玩經. 謄諸黃紙. 棋. 霹靂??造. 十二枚." 번역과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林下筆記』제29권,「춘명일사(春明逸史)」,「《영기경(靈棋經)》」,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2A_0320_010_0970_2007_006_XML

경』이 조선에 없었을 것이며, 빠르면 1500년대 중반, 늦으면 후반쯤 수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손재집』의 내용과 종합하여 생각해본다면, 조선에 처음 들어온 『영기경』 판본은 정덕 10년(1515년)에 중국에서 인쇄된 목판본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다.

V. 결론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영기경』은 조선 후기 양반층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퍼져 있었으며, 양반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영기점법을 활용하였다. 반란 모의나 전쟁 등 목숨이 걸린 일에서부터 상소문을 올리는 것처럼 정치적인 부담이 큰 일이나 기이한 꿈을 풀이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양반들은 영기점법을 활용했다.

둘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양반 이외의 계층도 『영기경』을 활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기가 쓴 전서에서 "주역의 도는 심오하고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기를 만들어 주역을 본뜬 것이다"와도 의미가 통한다.

셋째, 육조시대 이후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영기점법을 활용한 기록이 보이는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조선 후기 문헌에 인용된 『영기경』은 정덕 10년 목판본과 판본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가지 세워볼 만한 가설은, 1515년에 출판된 목판본(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이 조선에 처음 들어온 판본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지금까지 『영기경』이 어떤 책인지, 중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세밀한 분석이나 체계적인 평가에 이르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을 한데 모으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앞서 보았듯 한반도에서 『영기경』은 최소한 19세기까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책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21세기 초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기경』은 무척이나 생소한 책이다. 이

책이 한반도에서 어느 무렵에, 왜 잊혀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점복 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태현경』이나『초씨역림』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면 연구 내용을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잔스촹(詹石窗)이『초씨역림』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윤선도 유물전시관 사진을 보아도 윤선도가『초씨역림』과『영기경』을 한 묶음으로 보관한 것 같다. 장서각 문헌 해제에 따르면『아패령수(牙牌靈數)』또는『아패신수(牙牌神數)』라는 책은『영기경』을 모방하여 만든 책이다.[69] 그러므로 두 책의 관련성을 조사해볼 필요도 있다.

주제어:『영기경(靈棋經)』,『주역(周易)』, 점복, 바둑

투 고 일:	2023. 11. 01.
심사종료일:	2023. 11. 27.
게재확정일:	2023. 11. 28.

69) https://jsg.aks.ac.kr/dir/view?dataId=JSG_K3-716

부록

1.『영기경』판본

신원봉, 왕징보, 이와모토 등의 선행연구에 나열된 판본 목록을 한데 모았다.

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① 중국목판본, 간행자 미상, 正德 10년 간행, 2책. (청구기호: 古古1-80-21)

→ 본고는 이 판본을 바탕으로 썼다.

② 필사본, 靈巖郡 月溪精舍, 道光癸未春(1823년 봄) 刊寫. (청구기호: 한古朝 22-15)

→ 본고에서 '필사본'이라고 인용한 판본이다.

④ 목판본(명나라), 간행자 미상, 正德 10년 간행, 1책. (청구기호: 위창古1490-9)

→ 장지연이 쓴 초록/해제정보에 따르면 2책으로 구성된 <위창古1490-10>본(⑤번 판본)과 내용과 편차가 동일하다.

⑤ 목판본(명나라), 간행자 미상, 正德 10년 간행, 2책. (청구기호: 위창古1490-10)

→ 서지정보는 1515년 간행된 명나라 목판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장지연이 쓴 초록/해제정보에는 조선 후기 활자본으로 되어있고 간행년과 간행지를 알 수 없다고 되어있다. 책을 열람하지 못해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③ 필사본, 간사자 미상, 간사년 미상, 51장 1책

→ 신원봉이 제시한 목록에 등장한다.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지 못하였다. <위창古1490-9>본이거나 필자가 찾지 못한 판본일 것이다.

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① 목판본, 간행자 미상, 同治10년(1871) 간행, 유만영(劉晩榮)이 편집한『술고총초(述古叢鈔)』의 제8~9책. (청구기호: 奎中5913-v.8-9)

② 목판본, 간행자 미상, 道光4년(1824) 간행, 정지운이 편집한『백이한경재비서사종(百二漢鏡齋秘書四種)』제3책. (청구기호: 奎中6208-v.3)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① 중국목판본, 촉부승봉정곡번계(蜀府承奉正谷藩溪), 嘉靖37년(1588)간행, 2책. (청구기호: PC9C-9)

② 필사본, 간사자 미상, 간사년 미상, 89장 1책, 1541년 신축에 쓴 유기의 서문 첨부. (청구기호: PC9C-9A)

③ 필사본, 간사자 미상, 간사년 미상, 67장 2권1책, 1541년에 쓴 유기의 서문 첨부. (청구기호: PC9C-9B)

4) 그 외 국내 소장본

① 해남 고산 윤선도 박물관 소장『靈棋經』, 필사본, 2권 1책, 경자년 봄(庚子春) →『초씨역림』2권 2책과 영기알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5) 중국의 판본

① 文淵閣四庫全書 人子部 術數類『靈棋經』

② 正統道藏『靈棋經』또는『靈棋本章正經』

6) 돈황본

총 6점인데 분석결과 4권으로 압축되었다. 현재 대영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서 ②, ③, ④는 같은 계통의 판본이다.[70]

① P. 3782 + S. 557『靈棋卜法』

② P. 4048『靈棋經』

③ P. 4983V『靈棋經』

---

70) 王晶波,「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 81, 89.

④ S. 9766 + S. 9766V『靈棋經』

7) 일본의 판본

명대 이전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초본으로 전한다.[71)]

① 米澤市立圖書館본

② 동경대학 종합도서관본

③ 狩谷横蔚의 求古樓旧藏본

④ 대만고궁박물원 求古樓旧藏본

71) 岩本篤志,「六朝隋唐五代と日本における『靈棋経』: 敦煌本‧室町期鈔本を中心に.」

참고문헌

『靈棋經』판본

1) 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 모두 2책, 청구기호 古古1-80-21, 정덕 10(1515)년
2)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모두 1책, 청구기호 한古朝22-15, 1823년.
3) 흠정사고전서본; https://ctext.org/wiki.pl?if=gb&res=200451.

단행본

김석진.『대산 주역강의』1. 서울: 한길사, 1999.
신원봉 편역.『윷경』. 서울: 정신세계사, 2002.
王琳.『詩經植物圖鑒』.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南齊書』. 北京: 中華書局, 2017.
『隋書』. 北京: 中華書局, 2019.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문집

박광일.『遜齋集』.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446A_0080_010_0050_2019_002_XML
유경숙(劉敬叔).『異苑』.
https://zh.wikisource.org/wiki/%E7%95%B0%E8%8B%91/%E5%8D%B705#%E5%8D%81%E4%BA%8C%E6%A3%8B%E5%8D%9C
윤선도.『孤山遺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32A_0040_010_0010_2013_002_XML
이규경.『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070_010_0010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1A_0

140_010_0010
이유원.『林下筆記』.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2A_0320_010_0970_2007_006_XML
이원익.『紀年東史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sa&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sa_064_0220_0010_0150&position=-1
이익.『星湖全集』.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489A_0580_010_0020&viewSync=OT
최창대.『昆侖集』.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66A_0200_010_0010_2004_A183_XML

논문

- 중국

王晶波.「從敦煌寫本看《灵棋經》的源流演變」.『敦煌學輯刊』4 (2014): 80-92. https://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filename=DHXJ201404008&dbname=CJFDLAST2015
張美櫻.「靈棋經及其未來預測內涵」.『華人前瞻研究』19(1) (2023): 119-137. https://www.airitilibrary.com/Article/Detail/18715309-N202306150009-00008
田胜利. 「論《灵棋經》對《周易》的借鑒及其与易學理念的融通」. 『武陵學刊』40(5) (2015): 7-12. https://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filename=CDSS201505003&dbname=CJFDLAST2015
田胜利. 「論《灵棋經》繇辭的詩体特征及取象藝術与意義」. 『天中學刊』 31(2) (2016): 49-54. https://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filename=TZX

K201602012&dbname=CJFDLAST2016
詹石窗.「灵棋課法的由來及其符号解讀」.『周易研究』47(1) (2001): 68-78. https://oversea.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filename=ZYJY200101007&dbname=CJFD2001

- 일본

岩本篤志.「六朝隋唐五代と日本における『靈棋経』: 敦煌本・室町期鈔本を中心に.」.『資料學研究』3 (2006): 1-27.
太田晶二郎.「靈棋経 (昭和二十六年十月十二日報告)」.『日本學士院紀要』 9(3) (1951): 243-253. https://doi.org/10.2183/tja1948.9.243

- 서양

Morgan, Carole. "A propos des fiches oraculaires de Huang Daxian." *Journal Asiatique* 275 (1987): 163–191.
_____. "An Introduction to the Lingqi jing."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1 (1993): 97-120. https://www.tandfonline.com/doi/pdf/10.1179/073776993805307484
_____. "Old Wine in a New Bottle A New Set of Oracle Slips from China."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6 (1998): 1-19. https://www.tandfonline.com/doi/pdf/10.1179/073776998805306895
Esther-Maria Guggenmos. "Qian Divination and Its Ritual Adaptations in Chinese Buddhism."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46 (2018): 43-70.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qian-divination-ritual-adaptations-chinese/docview/2220833462/se-2?accountid=6802
Kashiwa, Ivan. *Spirit Tokens of the Ling Qi Jing*. Indiana: Weatherhill Distribution Inc., 1997.

인터넷 자료

나라국립박물관.「第57回 正倉院展」(2005), 32.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dataID=AKS-2016-SRK-1230009_TEXT@JG_0013
동양고전종합DB.『동양고전해제집』,「사부」,「《군재독서지》」.

http://db.cyberseodang.or.kr/front/sabuList/BookMain.do?bnCode=jti_5a1001&titleId=C34

박성학. 「박광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0555

_____. 「손재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0560

이기환. 「명품으로 치장한 '금수저' 신라공주 곁에 바둑돌 863개가 보였다」. 『경향신문』 2022.08.14.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8140800001

이동인. 「아패령수(牙牌靈數)」.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dir/view?dataId=JSG_K3-716

이완재. 「이유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5430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서울: 이회문화사,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09319&cid=62063&categoryId=62063

조계찬. 「이시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975

「汪浩」. 詞典网. https://www.cidianwang.com/lishi/renwu/6/72066dp.htm

Abstract

The Contents and Application of *Lingqi Jing*

Choi, Chi Yeong (Seoul National Univ.)

In this article, *Lingqi Jing* (靈棋經) was examined according to philological methods. Firstly, the time of its composition and its content structure was reviewed. It appeared that *Lingqi Jing* was written as early as the 3rd century, but not later than the Tang Dynasty. This work allocates directions to each of the trigrams, and its rules follow the postnatal eight trigrams. Secondly, Chinese records documenting the utilization of *Lingqi Jing* was explor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ublication dates of commentaries on *Lingqi Jing* and the timeline of the author's lives do not contradict each other. Thirdly, by examining its usage in the Korean Peninsula, attempts were made to deduce which edition was in circulation in Korea, as well as when it was acquired. In Korea, *Lingqi Jing* was utilized before making significant political decisions such as rebellions and impeachments. Although it cannot be made absolutely certain due to limitations in the available data, a hypothesis was formulated suggesting that an edition printed in the Ming Dynasty in 1515 (10th year of the Zhengde 正德 era) entered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popular in the late 1500s. Through this research, the utilization patterns of divination of *Yi Jing* (周易)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an be seen. Furthermore, it could be helpful in studying similar divination texts.

Keywords: *Lingqi Jing (靈棋經)*, *Yi Jing (周易)*, Divination, Go (Baduk / Weiqi)